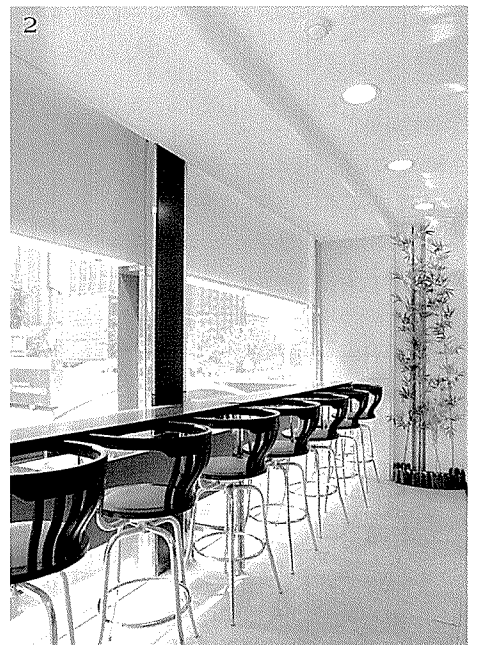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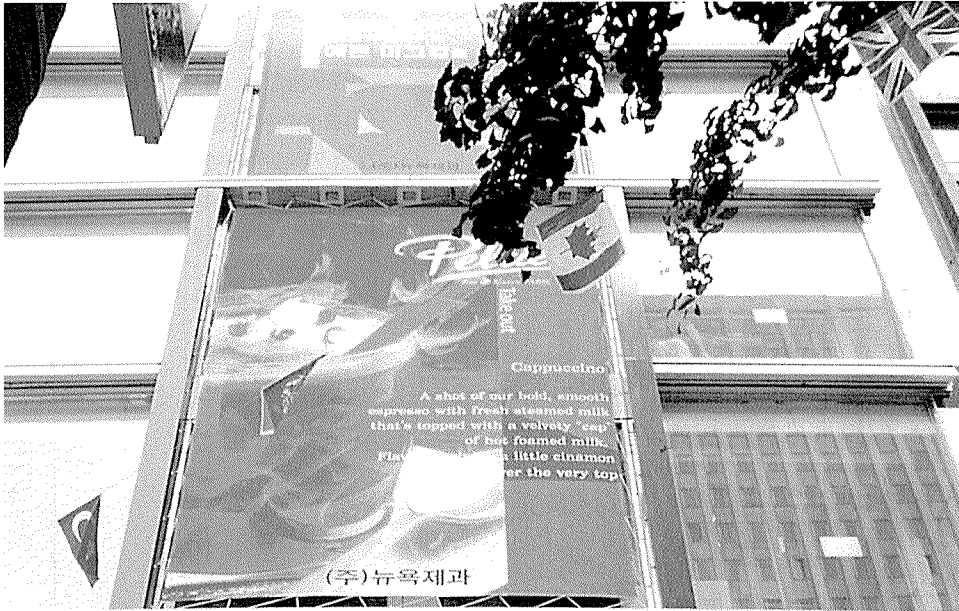


# 옛 명성 회복 위한 뉴욕제과의 출사표 복합형 베이커리의 전형이 될 Peltier 명동점

〈취재 / 김미선 sunny@mbakery.co.kr〉



- ① 이곳의 빵류 디스플레이(Display) 특징은 개별 비닐 포장을 하지 않고 되도록 풍성하게 담아 둔다는 것.
- ② 3층 샌드위치바에 마련된 창가 좌석. 군더더기 없이 단순한 인테리어는 'Peltier' 디자인팀의 자체 작품이다.

'Peltier'가 드디어 거리로 나섰다. 그동안 백화점·공항 등에만 입점해 왔던 'Peltier'가 지난 5월 9일, 구 뉴욕제과의 발원지인 명동에 자리잡은 것. (주)뉴욕제과가 'Peltier'의 첫번째 로드샵(Road Shop)의 위치로 명동을 택한 것은 '옛 영화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회사의 포부를 대변하는 것이다. 명동점은, 향후 (주)뉴욕제과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할 'Peltier'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 점포로서의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지상 '6'층 건물 중 (주)뉴욕제과 본사가 위치할 위쪽 '3'개 층을 제외한 전(全) 층은 'Peltier'만의 공간이다. '6-3=3'이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이 점포에 있어서 '6-3'의 정답은 '5'이다. 공장이 위치한 '지하층', '복층 구조'로 설계돼 2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뉘어진 '1층'이 있기 때문. 다섯개 층은 각각 개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장 및 고객용 테이블이 위치한 지하층, 테이크아웃의 개념을 도입한 1층, 일반 베이커리 매장이인 2층, 샌드위치 바가 될 3층, 케이크 카페 4층 등 이곳은 베이커리와 연관된 모든 것을 총별로 집합시킨 '복합형 점포'의 전형이다.

명동점에서는 빵류 상품 대부분이 페이스트리류이고, 단과자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송병훈 'Peltier' 제과장은 "명동 쇼핑객인 중상층 여성과 젊은 세대가 주고객임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곳의 주력 상품인 '깨찰빵'과 '치즈볼'은 점포의 정·후면에 각각 위치한 가판대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Peltier' 명동점은 고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할 홍보 수단으로 가판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저렴한 단가의 대표 빵류 중심으로 구성하여 고객들이 부담없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였고 시식과 무료 증정 행사 또한 두곳의 가판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명동점은 샌드위치의 다양화·충실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지적 특성상 직장인들의 유동이 많은 점을 고려, 아침 출근시간에는 샌드위치 구매 고객에게 커피나 우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체 매출에서 샌드위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7월 중 문을 열게 될 케이크 카페 또한 '맥주집에서 제공되는 팝콘'처럼 커피와 곁들이는 쿠키를 무료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친구들과 단팥빵을 사 먹던 여고시절 뉴욕제과에 대한 향수로 이곳을 찾게 되었다'는 중년 부인과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인테리어가 맘에 든다'는 젊은 세대들. 나이만큼이나 많은 차를 보이는 그들의 하나된 의견은 'Peltier'의 고급스러운 빵을 명동에서도 접할 수 있게 돼 반갑다'는 것이다. 오픈 한 달

째, 아직은 전체적인 골격만 세워 두었을 뿐. 앞으로 1년 동안 고객의 반응을 관찰하여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이곳이 아직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명동의 대표적 휴식 공간'을 지향하는 'Peltier' 명동점에 베이커리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 ③ 1층에서는 커피 등의 음료를 테이크아웃(Take-out)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구에 위치한 케이크 쇼케이스가 테이크아웃 고객들의 시선을 한번 더 사로잡는다.
- ④ 1과 2분의 1층. 1층을 복층으로 나눈 이곳은 오로지 빵류만을 위한 공간이다.
- ⑤ 아침 출근 시간 이곳에 가면 샌드위치 하나 가격으로 커피나 우유도 마실 수 있다.
- ⑥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다섯 개 층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Peltier'의 세련된 CI.
- ⑦ 7월 중 개장할 4층 케이크 카페. 무스 케이크를 포함한 다양한 양과자류를 준비중이다.
- ⑧ 가판대는 빠른 시간 내에 'Peltier'의 빵맛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이다.

